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가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가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80호 현대불교
2008년 5월 21일(음력 4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진실하게 내 안으로 날날이 굴러놓으세요!

마음공부 한 사람이 죽는다면...

문 마음을 닦는다고는 하는데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이 다하기 전에 제 마음을 다 닦아서 근본을 밝힌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마음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과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하다가 간 사람과 나를 밝히고 간 사람의 차이점을 설해 주십시오.

답 다른 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꼭 이 공부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이렇게 내 안으로, 날날이 안으로 굴러서 안으로 돌리는 것, 이 생활하는 모든 것, 죽고 사는 것 생사윤회를, 모든 것을 이 내 마음 안으로 돌리는 데 그 묘미가 있는 거죠. 공부를 한 사람에 한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돌려놓으라고,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죽을 때는 죽기 전에 자기 갈 자리를 자기가 다 마련해 놓고 가요. 이걸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에 요점이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해서는 몸을 벗을 때 몸 벗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벌써, 정자와 난자를 쫓아서 자기가 어디를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열 달 내내 길러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딱 끊어지면요, 사람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큰 생명이 된다면가 이리다 하더라도 말이예요. 꼭 사람으로만 비유하지 마세요. 사람이 의의 정말 벗어난 선인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정망해서 다 해 놓습니다. 또 사람이 된다 하면 만 아홉 달이 걸려야 되지만 만 아홉 달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 쓰는 거지 딴 데서는 만 아홉 달이라는 게 똑같이 쓰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그쪽으로 가고 이 옷은 벗어요. 사람으로 내가 화한다 할 때는 내가 목숨이 한 찰나에 딱 떨어질 때, 벌써 그러로 가는 겁니다. 이걸 벌써 미리 가 있어요. 벌써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홉 달 내내 길러 가지고 나오는 거죠. 여기는 사는 그 습관 있다 뿐이지 자기가 길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해서 그러로 가서 자기가 벌써 자기를 기르고 있어요. 그러니 길잡이는 자기죠. 자기 이외에 길잡이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또, 공부를 안 한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가 자기 개척을 못하고 자기가 길을 모르고 컴컴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누가 인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그렇게 살던 자기의 그 습이 있어서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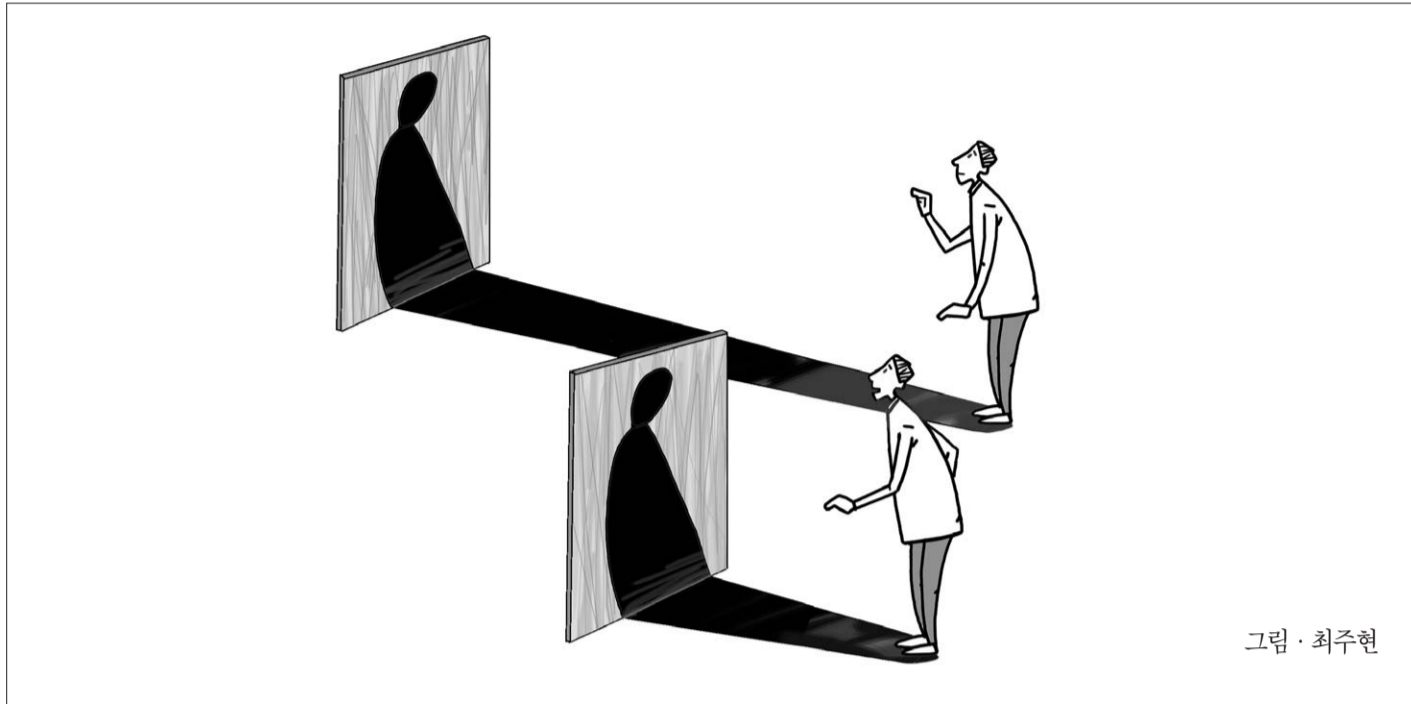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캄캄하니까요. 그래서 살던 습에 의해서 자기가 착을 두고 있는 데에 그냥 머물러 버리죠. 그래 거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때에 따라서는 영계는 집에서 산 사람한테 뱅뱅뱅뱅 돌게 되고, 자식이 고 부모고 뭐 누구를 막론하고 얘기예요. 죽기 전에 자기가 집안의 친척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은 몰라도 그 길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에 의해서 뱅뱅뱅뱅 돌아다니죠. 자기에게 더 잘해 준 사람 앞에, 또는 자기 친구한테. 그래서 그 친구로 인해서 남 논등에 주저 앉는 법도 있죠. 저희 집 식구들이 시원치 않고 그러면 친구한테로 가져거든요. 이게 문제가 참, 여기 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바깥으로만 만날 돌고 다니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길을 자기가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내가 길을 인도 받아야 할 텐데 그 은사도 똑바른 사람을 못 뵈었다면 그마저도 못 없는 겁니다. 그러니 캄캄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슨 개집이나 새집이나 족제비 소굴이나 돼지 소굴이나 뭐 이런 데로, 소 외양간 뭐 이런 데로 그냥, 그냥 떠지는 거죠. 또 요행히, 자기가 마음이 착해서 참 요행히 걸린다면 사람이 어떤 차원을 가진 줄도 모르게 그냥 그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중팔구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도리를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열 사람이려면, 캄캄한 그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열 명 중에 두 명 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인간에게도 이득이 없고 사회에도 이득이 없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없고 세계적으로도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예전보다도 너무 잘 알아요. 세계를, 예전엔 그렇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알고 있는 자기가 벌써 계발이 된 겁니다. 본래,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아이구! 난 저게 좋다, 저게 좋다.' 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잠재의식 속으로 가서 컴퓨터에, 자연 컴퓨터에 가서 저장돼 있거든요.

그러니 왜 이득이 없느냐 하면 자기가 이 도리를 모르면 그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자기 그 박혀 있는 대로 길이 갈 것이고, 자기가 자유권을 갖고 자유자재한다면 그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미리미리 그렇게 다 해서 한 찰나에 팔각 하면, 자기가 웃만 팔각 빛는 거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웃을 벗으려면 홀출 그냥 벗죠. 그 순간뿐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옮겨 놓는 거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한 사람에게는 '길다. 짧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공부를 한다면 '한 찰나'

이럴 때 이쪽에서의 한 찰나, 한 찰나는 한 찰나인데 이 집으로 들어가느냐 저 집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죠!

그러면 열 달이 걸리고도 한 찰나, 일 초가 걸리고 열월이 걸렸다 또는 아홉 달이 걸렸다 이래도, 만약에 이는 사람이 이렇게 믿고 다니던 길잡이가 있다면 벌써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다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막아 줄 수 있는 겁니다. 즉시! 그런데 막아 줄 수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홉 달이 됐다 하더라도 일 초로 축소한다 말입니다. 이 건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쁜 사람 하나 만나기가 극히 어렵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 만나면 이익이,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 사람 하나 만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디?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 하나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이 공부하는 꼭 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이 있을 뿐 아니라 타의에서 구하면 절대로 그것은 세세생생에 해로운 것이 타쳐 온다는 얘깁니다. 왜냐? 그것이 습의 인과가 돼서 그게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 한번 잘못하는 까닭에,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하는 바람에 그만 자기가 씨를 뿌려 놓는 거까지도 그냥 및

대조까지 내려가는 거죠. 뭐, 그러니 글세 얼마나 그게 중요할까? 우리가 지금 보통 그냥 그저 기도나 하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식구가 다 금이 되느냐 마느냐,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죠.

모두들 보면 '아이, 우리 장사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바빠서 못 오고...' 이러시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가게 문 잠가 놓고도 왔다가 가는데 그렇게 가도 하루 종일 열어 놓고 파는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면 이 공부 하는 게 제일 인간으로서 급하죠. 먹고사는 문제도 그건 이차죠. 그렇다고 해서 굶고 벌지 말고 다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버는 거 벌면서도 조금만 부지런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상생활의 참선이니까요.

남편을 믿지 못하겠어요

문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실천을 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가 26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혹여 밖에서 또다시 그 여자와 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자주 들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대문 밖을 나가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고 직장에 나가도 걱정이 되고...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에 대한 마음을 쉴 수가 있겠는지요?

답 아주 간단해요. 지금 그런 데서 행복하다 못해 지겹죠? 사랑은 주는 게 사랑이지 끌어 잡아당기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없었던 남편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러니 잘하든 못하든 자기 탓으로 돌려세요.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어 놔 보세요. 더 짧고 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냥 확 풀어 놓으면 아주 자동적으로,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착하고 상상하고 그러지 말고 따뜻하게 그냥 다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서로 똑같이 그러란 말이예요.

똑같이, 부인이 잘못하는 거는 남편이 '이것도 다 내 탓이야. 주인공, 너만이 저 사람 그렇지 않게 해!' 하고 자유를 주고, 또 닻은 남편에게 그렇

26면으로 계속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금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4서비스] 검색 - 114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내금강 성지순례 할인행사

불기2552년 부처님 오신날과

금강산 내금강성지순례 출발 1주년을 기념하여

불자여러분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개최합니다.

크스님들의 자취와 부처님의 법향 가득한 내금강 및 개성지역

불교성지순례 행사에 불자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바랍니다.

- 주요노정** (내금강)표훈사 - 보덕암 - 묘길상 - 마하연사터 - 삼불암 - 백화암터 - 장안사터 - (외금강)신계사
- 통참비용** 44만원(정상가) -> 42만원(기본 할인가) * 식비(현지 중식식), 집결지교통비 별도
- 신청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갈라사진 1매, 신청서(연락처, 직장/직위 기록)

1. 할인혜택 및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불자 기본 5% 할인 혜택, 장애우 경로자 20~30% 할인
- 사찰 단체 추가할인 적용

2. 사찰별 맞춤 서비스 제공

- 당일부터, 1박2일, 2박3일, 3박4일 등 사찰 및 단체에 적합한 별도 노정 가능
- 현지 식사 및 전세버스 섭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우란분절 (백중)기념 금강산 삼사순례 특가 행사 (8.01 ~ 9.30)

- 건봉사, 화암사, 신계사 참배 순례 (1박 2일)
- 1인당 19만원 (30인 이상 출발 가능, 전세버스비 별도)

문의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팀 (02-3210-1237)

* 발생되는 수익은 불교문화 진흥기금으로 쓰입니다

www.visitkumgang.co.kr